

## 남·여 중등학생의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조사

강 영 희\* · 김 영 남\*\*

포항항도여자중학교\*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 A Study about Perception and Participation on Meal Management in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Kang, Young-Hee\* · Kim, Young-Nam\*\*

*Pohang Hang Do Girls'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participation and perception on meal management of the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fathers.

Total of 446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in Pohang and Youngduk in Gyeongbuk were participated in the questionnaire survey. Among the 446 questionnaires collected, 38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Students participation frequency on meal management was quite insufficient, once or twice a month in average, and was differed by sex that female students participate more frequently than males. High school male students who have never been taught the home economics course showed the lowest participation.

2. Among the meal planning, grocery shopping, cooking, and dishwashing, 60% of the students chose cooking as the most preferred work. As whole, they chose the meal planning as the most difficult work, but high school male students chose cooking as the most difficult work.

3. Most of the students wanted to learn more about food purchasing, meal planning, cooking skill, table setting, food storage and table manners, the priority was given to table manners and cooking skill.

4. Participation score on meal management of student' fathers was even lower than that of students, only a little more often than once or twice a year. Because son usually identifies himself with his father, father should participate more often than now.

5. As for responsibility of meal management in the future, 78.2% of the male students and 91.8% female students answered that husband and wife must share the responsibility

together when both husband and wife have job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 등으로 급속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가정 생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독신가정과 노인인구 증가 현상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 교과는 가정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가정 생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과로(이인희·이옥임, 1995), 2001년부터 제7차 교육 과정에 의거하여 남녀 중 고생 모두에게 기술·가정교과를 이수토록 하고 있다. 이는 남·여 공히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사노동에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가사노동 중 많은 부분들이 사회화되었으나 아직도 식사관리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중 특히 주부의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분야로 남아있다. 현재 남녀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식사관리에 관련된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남녀 학생들의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변화하는 사회와 가정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현재의 입시 풍토와 학력 위주의 생활에서는 학생들이 식사 관리를 포함하여 가사노동을 체험할 기회가 아주 부족하다. 이는 미래의 가정 생활에서 역할 갈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조사를 토대로 학교의 가정교과를 통한 인식 변화와 조리 실습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식사관리에 대한 올바른 태도 형성은 물론 가정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행 연구 중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는 거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연구(정영금, 1984; 이정수, 1984; 이정수·고경애, 1985; 김선희, 1989; 김정

희, 1993)에 의하면 주부의 1일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7.8시간이며 그중 식생활 부분이 3.6시간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사노동 영역 중 식생활 분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관리는 가족의 건강을 좌우하며 생활에 활력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가족 구성원의 역할 변화에 따른 남·여 중 고생의 가정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고, 식사관리와 관련한 식생활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남·여 중 고 학생의 식사 관리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학생의 식사관리 참여 실태
- (2) 식사관리 항목별 선호도와 난이도
- (3)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 실태
- (4)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인식
- (5) 미래의 식사관리 책임에 대한 학생의 인식
- (6) 식사관리 항목별 학습 요구도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경북 포항시와 영덕군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은 제6차 교육과정 전과정을 이수하였고, 여자 고등학생은 제6차 교육과정을 이수 받고 있으며, 남자 고등학생은 가정 교과를 전혀 배우지 않았다. 가정 교과의 학습 여부 및 학습 수준, 그리고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남자 고등학생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98년 6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연구자가 포항시와 영덕군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가정과 교사를 통해 중·고 남녀 학생 총 446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케 한 후 회수하였다. 내용

의 기재가 부실하여 분석에 부적합한 61부를 제외한 358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와 관련 문헌을 토대로 적합한 문항을 연구자가 선정하고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예비조사를 거친 후 수정 보완하였으며, 신뢰도를 보는 Chronbach's  $\alpha$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질문은 총 8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일반 사항에 관한 질문 10문항을 포함하여 식사 관리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는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의 3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식사 관리 선호도와 난이도 조사는 식단짜기,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의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습 요구도 조사는 식단작성, 식품구입, 조리기능, 상차림, 식품보관, 식사예절의 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N),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그리고 집단간의 차이 검증을 위해 변량분석과  $X^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 특성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남중생 110명(28.6%), 여중생 94명(24.4%), 여고생 89명(23.1%), 남고생 92명(23.9%)으로 구성되었다. 성별로는 남자 202명(52.5%), 여자 183명(47.5%)이었으며, 학교 급별로는 중학생 204명(53.0%), 고등학생 181명(47.0%)이었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이 180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는 141명(36.6%), 대졸이상 64명(16.6%)이었다. 어머니 학력은 중졸이하가 203명(52.8%)로 가장 많았고, 고졸 158명(41.0%), 대졸이상 24명(6.2%)이었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전문직이 132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직업이 없는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 특성

N=385

구분	내용	N(%)	구분	내용	N(%)
남녀 중고별	여중	94(24.4)	부의 직업	단순직	66(17.1)
	여고	89(23.1)		판매직	112(29.1)
	남중	110(28.6)		사무직	75(19.5)
	남고	92(23.9)		전문직	132(34.3)
성별	남	202(52.5)	모의 직업	유	155(40.3)
	여	183(47.5)		무	230(59.7)
학교 급별	중학생	204(53.0)	조모 동거	예	78(20.3)
	고등학생	181(47.0)		아니오	307(79.7)
학교 소재지	도시	180(46.8)	부 연령	30대	16( 4.1)
	읍 이하	205(53.2)		40대	281(73.0)
부의 학력	초졸	48(12.5)		50대 이상	88(22.9)
	중졸	93(24.1)	모 연령	30대	65(16.9)
	고졸	180(46.8)		40대	297(77.1)
	대졸 이상	64(16.6)		50대 이상	23( 6.0)
모의 학력	초졸	68(17.7)	출생순위	만이	123(32.0)
	중졸	135(35.1)		중간	61(15.8)
	고졸	158(41.0)		막내	153(39.7)
	대졸 이상	24( 6.2)		외동	48(12.5)

전업 주부가 230명(59.7%)로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281명(73.0%)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연령도 40대가 297명(77.1%)으로 가장 많았다.

2.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

학생 자신과 학생 아버지의 평소 식사관리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미래에 학생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를 가정하여 식사관리에 대한 주책임이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1) 식사 관리 참여 실태

식사관리 관련 항목별 학생의 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시장보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와 '월 1-2회 한다'가 26.0%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음식 만들기는 '주 1-2회 한다'는 항목이 32.2%로, 설거지 항목은 '주 1-2회 한다'가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의 매일 참여하는 비율은 시장보기 4.1%, 음식 만들기 9.1%, 설거지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관리 참여 빈도에 대해 '전혀 하지 않는다' 1점, '년1-2회(특별한 날) 한다' 2점, '월 1-2회 한다' 3점, '주1-2회 한다' 4점, '거의 매일 한다' 5점을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식사관리 항목 3가지의 평균 점수는 2.89, 즉 '월 1-2회 참여한다'의 수준으로 조사되어 가정에서의 실제 식사 관리 참여 빈도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식사관리 가운데 설거지 참여 점수가 가장 높았고(3.13), 시장보기 참여 점수는 가장 낮았으며(2.59), 식사관리 항목간의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것은 현행 입시 위주의 정책과 이에 편승한 부모의 교육 방침으로 인하여 참여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가정에서 식사관리에 대한 일을 분담함으로써 자녀들은 협동심, 성취감, 만족감, 사회적응력 등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 대한 자립심을 기를 수 있다는 면에서 식사 관리에 대한 일을 분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학교에서는 조리 실습 시간을 활용하고 식생활 단원의 지도를 통하여 가정에서의 식사관리 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련 변인에 따른 학생의 식사관리 참여 빈도는

<표 2> 학생들의 식사관리 참여 빈도

N(%)

구분 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년1-2회 특별한 날	월1-2회	주1-2회	거의 매일 한다	계
시장보기	100(26.0)	80(20.8)	100(26.0)	89(23.1)	16( 4.1)	385(100)
음식 만들기	72(18.7)	67(17.4)	87(22.6)	124(32.2)	35( 9.1)	385(100)
설거지	67(17.4)	47(12.2)	97(25.2)	116(30.1)	58(15.1)	385(100)

<표 3> 식사 관리 참여도 평균

항 목	평 균(표준 편차)
시장 보기	2.59 (1.22)
음식 만들기	2.96 (1.27)
설거지	3.13 (1.31)
계	2.89 ( .94)

· 전혀 없다(1점), 년1-2회(특별한 날) 한다(2점), 월 1-2회 한다(3점), 주1-2회 한다(4점), 거의 매일 한다(5점)

〈표 4〉 식사관리 참여 빈도

$\bar{X}(S \cdot D)$

항목	성별			학교급별			남녀 중·고교별				
	남	여	F값	중	고	F값	여중	여고	남중	남고	F값
시장보기	2.35 (1.22)	2.85 (1.16)	16.60***	2.73 (1.23)	2.43 (1.16)	6.11*	2.98 (1.19)	2.71 (1.12)	2.52 (1.27)	2.15 (1.13)	8.00***
음식만들기	2.90 (1.37)	3.02 (1.15)	.944	2.99 (1.31)	2.92 (1.23)	.233	2.95 (1.18)	3.10 (1.12)	3.02 (1.41)	2.75 (1.31)	1.28
설거지	2.52 (1.27)	3.81 (0.97)	122.99***	3.20 (1.30)	3.06 (1.31)	1.19	3.87 (.92)	3.74 (1.03)	2.63 (1.31)	2.39 (1.21)	41.99***

· 전혀 없다(1점), 년 1-2회(특별한 날)한다(2점), 월 1-2회 한다(3점), 주 1-2회 한다(4점), 거의 매일 한다(5점) \*\*\*p<.001, \*p<.05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시장보기와 설거지를 남학생보다 더 자주 하고 있었다(p<.001). 학교 급별에서는 중학생들의 시장보기 참여 빈도가 높았다(p<.05). 남녀 중·고교별로는 시장보기와 설거지에서 여중생들이 자주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1).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자주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는 가정 교과와 학습 경험 여부도 영향을 주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여학생의 식사관리 참여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은 남녀 성차에 따른 역할 분담의 일면으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식사관리 항목별 선호도와 난이도

식사관리 항목별 선호도와 난이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은 음식 만들기가 59.7%로 가장 많았고, 싫어하는 일은 설거지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설거지였고,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일은 식단 짜기로 나타났다. 이는 47.4%가 식단계획을 가장 어

운 일이라 지적했던 주부를 대상으로 한 백민자(199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식단계획은 식단을 미리 계획함으로써 가족에게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고, 또 경제적으로 계획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며, 가족의 기호를 충족시켜 주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사들은 학생들이 식단 짜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식사관리 항목 중에서 설거지는 가장 쉬운 일인 반면 가장 하기 싫은 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음식만들기는 좋아하는 일인 반면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흥미로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일도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을 통해 지도가 요망된다.

식사관리 항목별 선호도와 난이도의 차이를 분석한 것은 〈표 6〉에 제시하였다.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싫어하는 일, 가장 쉬운 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 모두에서 성별, 남녀 중·고교별로 유의한 차

〈표 5〉 식사 관리 항목에 대한 선호도와 난이도

N(%)

구 분	항 목	식단 짜기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	계
	선호도	가장 좋아하는일	38( 9.9)	80(20.8)	230(59.7)	37( 9.6)
가장 싫어하는일		91(23.6)	78(20.3)	22( 5.7)	194(50.4)	385(100)
난이도	가장 쉬운일	51(13.3)	133(34.5)	54(14.0)	147(38.2)	385(100)
	가장 어려운일	172(44.7)	52(13.5)	126(32.7)	35( 9.1)	385(100)

〈표 6〉 식사관리 항목별 선호도와 난이도

N(%)

내용	일반특성 항목	성별			학교 급별			남녀 중·고교별				
		남	여	x2	중	고	x2	여중	여고	남중	남고	x2
가장좋 아하는 일	식단 짜기	29 (14.4)	9 (4.9)	16.59**	22 (10.8)	16 (8.8)	6.95	6 (6.4)	3 (3.4)	16 (14.6)	13 (14.1)	24.43**
	시장 보기	37 (18.3)	43 (23.5)		32 (15.7)	48 (26.5)		17 (18.1)	26 (29.2)	15 (13.6)	22 (23.9)	
	음식 만들기	110 (54.4)	120 (65.6)		130 (63.7)	100 (55.3)		64 (68.1)	56 (62.9)	66 (60.0)	44 (47.9)	
	설거지	26 (12.9)	11 (6.0)		20 (9.8)	17 (9.4)		7 (7.4)	4 (4.5)	13 (11.8)	13 (14.1)	
	계	202 (100)	183 (100)		204 (100)	181 (100)		94 (100)	89 (100)	110 (100)	92 (100)	
	가장싫 어하는 일	식단 짜기	44 (21.8)		47 (25.7)	28.79***		47 (23.0)	44 (24.3)	12.02**	24 (25.5)	
시장 보기	57 (28.2)	21 (11.4)	54 (26.5)	24 (13.3)	14 (14.9)		7 (7.9)	40 (36.4)	17 (18.5)			
음식 만들기	18 (8.9)	4 (2.2)	8 (3.9)	14 (7.7)	1 (1.1)		3 (3.4)	7 (6.3)	11 (12.0)			
설거지	83 (41.1)	111 (60.7)	95 (46.6)	99 (54.7)	55 (58.5)		56 (62.9)	40 (36.4)	43 (46.7)			
계	202 (100)	183 (100)	204 (100)	181 (100)	94 (100)		89 (100)	110 (100)	92 (100)			
가장쉬 운일	식단 짜기	35 (17.3)	16 (8.7)	11.74**	32 (15.7)		19 (10.5)	4.96	9 (9.6)		7 (7.9)	23 (20.9)
시장 보기	56 (27.7)	77 (42.1)	71 (34.8)		62 (34.2)	41 (43.6)	36 (40.4)		30 (27.3)	26 (28.3)		
음식 만들기	29 (14.4)	25 (13.7)	32 (15.7)		22 (12.2)	15 (16.0)	10 (11.3)		17 (15.4)	12 (13.0)		
설거지	82 (40.6)	65 (35.5)	69 (33.8)		78 (43.1)	29 (30.8)	36 (40.4)		40 (36.4)	42 (45.7)		
계	202 (100)	183 (100)	204 (100)		181 (100)	94 (100)	89 (100)		110 (100)	92 (100)		
가장어 려 운일	식단 짜기	68 (33.7)	104 (56.8)		26.25***	93 (45.6)	79 (43.6)		389	52 (55.3)	52 (58.4)	41 (37.3)
시장 보기	37 (18.3)	15 (8.2)	28 (13.7)	24 (13.3)		9 (9.6)	6 (6.8)	19 (17.3)		18 (19.6)		
음식 만들기	71 (35.1)	55 (30.1)	66 (32.4)	60 (33.2)		29 (30.8)	26 (29.2)	37 (33.6)		34 (37.0)		
설거지	26 (12.9)	9 (4.9)	17 (8.3)	18 (9.9)		4 (4.3)	5 (5.6)	13 (11.8)		13 (14.1)		
계	202 (100)	183 (100)	204 (100)	181 (100)		94 (100)	89 (100)	110 (100)		92 (100)		

\*\*\*p<.001. \*\* p<.01

이가 나타났으나, 학교 급별로는 가장 싫은 일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좋아하는 일은 식단 짜기와 설거지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좋아하는 일로 응답하였으며, 시장보기와 음식 만들기는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녀 중·고교별로는 식단 짜기는 남중생, 시장보기는 여고생, 음식 만들기는 여중생, 설거지는 남고생의 응답율이 높았다. 중학교 남녀 학생들의 간단한 음식 만들기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온 홍은정(199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가장 싫어하는 일은 성별, 학교 급별, 남녀 중·고교별 모두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이(60.7%) 남학생(41.1%)보다 설거지를 싫은 일로 인식하고 있었고, 고등학생(54.7%)이 중학생(46.6%)보다 더 설거지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중·고교별로는 여고 62.9%, 여중 58.5%, 남고 46.7%의 학생들이 설거지를 가장 싫은 일로 지적했으며, 남중은 36.4%의 학생이 싫은 일로 지적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가장 쉬운 일은 성별로 보면, 시장보기를 제외한 식단 짜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에서 남학생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은 시장보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남녀 중·고교별로는 식단 짜기는 남중생, 시장보기와 음식 만들기는 여중생, 설거지는 남고생이 가장 쉬운 일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일로는 성별, 남녀 중·고교별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별에서는 식단 짜기만 여학생이 가장 어려운 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 모두에서 남학생이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남녀 중·고교별로는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의 경우 남고생이, 그리고 식단 짜기는 여고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설거지를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학생들이 가정에서 설거지를 더 자주 하는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시장 보기를 제외한 음식 만들기, 설거지, 식단 짜기를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쉬

〈표 7〉 아버지의 식사 관리 참여 빈도

N(%)

구분 내용	N(%)					
	전혀 하지 않는다	년1-2회 특별한날	월1-2회	주1-2회	거의 매일 한다	계
시장보기	108(28.0)	90(23.4)	88(22.9)	88(22.9)	11(2.8)	385(100)
음식 만들기	131(34.0)	103(26.8)	62(16.1)	60(15.6)	29(7.5)	385(100)
설거지	170(44.2)	80(20.8)	47(12.2)	55(14.2)	33(8.6)	385(100)

〈표 8〉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 빈도

$\bar{X}(S \cdot D)$

구분 일반특성	성별			학교 급별			남녀 중·고교별				
	남	여	F값	중	고	F값	여중	여고	남중	남고	F값
시장보기	2.43 (1.25)	2.56 (1.15)	1.06	2.58 (1.18)	2.39 (1.22)	2.57	2.56 (1.14)	2.55 (1.16)	2.60 (1.21)	2.23 (1.27)	1.97
음식 만들기	2.34 (1.30)	2.38 (1.29)	.072	2.57 (1.34)	2.12 (1.20)	12.31**	2.52 (1.33)	2.22 (1.24)	2.62 (1.35)	2.01 (1.15)	4.61**
설거지	2.27 (1.38)	2.17 (1.35)	.545	2.35 (1.46)	2.08 (1.23)	3.64	2.28 (1.44)	2.06 (1.25)	2.41 (1.49)	2.11 (1.23)	1.39

· 전혀 없다(1점), 년 1-2회(특별한 날)한다(2점), 월 1-2회 한다(3점), 주 1-2회 한다(4점), 매일 한다(5점).

\*\* p<.01

운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

3) 아버지의 식사 관리 참여 실태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 실태는 <표 7>에 제시하였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식사관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시장보기 28.0%, 음식 만들기 34.0%, 설거지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주1-2회 한다'는 시장 보기가 22.9%, 음식 만들기 15.6%, 설거지에서는 14.2%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식사관리에 대한 참여 빈도는 아주 낮은 편이었다.

현재의 참여 정도는 자녀의 본보기가 되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볼 때 남녀 학생들에게 가정에서의 식사관리 공동분담에 대한 의식 변화가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 빈도를 관련 변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학생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교 급별에서는 음식 만들기에서 중학생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버지보다 참여 빈도가 높았다(p<.01). 남녀 중·고교별로는 음식 만들기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중학생의 아버지들이 여중, 여고, 남고생의 아버지보다 음식 만들기 참여 빈도가 높았다(p<.01).

비교적 남중, 여중에 다니는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고등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보다 식사 관리에 더 참여율이 높은 것은 아버지 연령층이 다소 낮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비교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단정할 수는 없다.

4)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인식

아버지 식사관리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인식 상태를 적극 찬성 5점~적극 반대 1점을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아버지의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 항목 참여에 대하여 성별, 남녀 중·고교별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여학생들은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를 찬성하고 있었으며,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었다. 즉 시장보기에서 여학생 3.97, 남학생은 3.56, 음식 만들기에서는 여학생은 4.04, 남학생은 3.57, 설거지에 대해서도 여학생은 3.95, 남학생은 3.39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점수가 낮았다. 학교 급별로는 시장보기에서만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시장보기는 고등학생들이 3.89, 중학생들은 3.63으로 아버지의 시장보기 참여에 대하여는 고등학생들이 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중·고교별로는 전 항목에서 여고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여고생이 아버지 식사관리 참여에 대한 찬성율이 높은 것은 가정과 수업을 통한 사회의 변화, 가정 생활의 역할 변화를 잘 인지하여 미래의 가정 생활은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고생들은 다른 집단보다 아버지 조리 참여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았다. 가정 교과를 배우지 않은 남자고등학생들은 식사관리 전체 부분에서 인식 점수가 가장 낮게 나오고 있어, 이런 인식 차이는 남녀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미래의 가정에서 남녀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생들도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가

<표 9>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인식

$\bar{X}(S \cdot D)$

일반특성 항목	성별			학교 급별			남녀 중·고교별				
	남	여	F값	중	고	F값	여중	여고	남중	남고	F값
시장보기	3.56 (1.01)	3.97 (.89)	17.59***	3.63 (.99)	3.89 (.94)	6.80**	3.81 (.91)	4.13 (.84)	3.48 (1.03)	3.65 (.98)	8.29***
음식 만들기	3.57 (.99)	4.04 (.88)	24.15***	3.80 (.98)	3.80 (.96)	.001	3.98 (.94)	4.11 (.82)	3.64 (.99)	3.49 (.99)	8.80***
설거지	3.39 (1.17)	3.95 (.98)	24.94***	3.65 (1.12)	3.66 (1.12)	.012	3.82 (1.03)	4.08 (.91)	3.50 (1.18)	3.26 (1.16)	10.12***

· 적극반대(1점), 반대(2점), 그저 그렇다(3점), 찬성(4점), 적극 찬성(5점)

\*\*\*p<.001, \*\* p<.01

〈표 10〉 미래의 식사관리 책임에 관한 인식

N(%)

1) 남편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의 식사관리 책임

구분	일반특성			성별			학교급별			남녀 중·고교별				
	남	여	x2	중	고	x2	여중	여고	남중	남고	x2	계		
전적으로 아내	29 (14.4)	20 (10.9)	5.67	21 (10.3)	28 (15.5)	10.67*	5 (5.3)	15 (16.9)	16 (14.5)	13 (14.1)	20.75	49 (12.7)		
가능한 아내	117 (57.9)	126 (68.9)		122 (59.8)	121 (66.8)		66 (70.2)	60 (67.4)	56 (50.9)	61 (66.3)		243 (63.1)		
남편, 아내 반반씩	46 (22.8)	32 (17.5)		49 (24.0)	29 (16.0)		19 (20.2)	13 (14.6)	30 (27.3)	16 (17.4)		78 (20.3)		
가능한 남편	9 (4.4)	4 (2.2)		10 (4.9)	3 (1.7)		3 (3.2)	1 (1.1)	7 (6.4)	2 (2.2)		13 (3.4)		
전적으로 남편	1 (0.5)	1 (0.5)		2 (1.0)	·		1 (1.1)	·	1 (0.9)	·		2 (0.5)		
계	202 (100)	183 (100)		204 (100)	181 (100)		94 (100)	89 (100)	110 (100)	92 (100)		385 (100)		

2) 아내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의 식사 관리 책임

구분	일반특성			성별			학교급별			남녀 중·고교별				
	남	여	x2	중	고	x2	여중	여고	남중	남고	x2	계		
전적으로 아내	1 (0.5)	·	1.44	·	1 (0.6)	4.52	·	·	·	1 (1.1)	8.37	1 (0.2)		
가능한 아내	11 (5.5)	9 (4.9)		9 (4.4)	11 (6.0)		5 (5.3)	4 (4.5)	4 (3.6)	7 (7.6)		20 (5.2)		
남편, 아내 반반씩	56 (27.7)	56 (30.6)		67 (32.8)	45 (24.9)		32 (34.0)	24 (27.0)	35 (31.8)	21 (22.8)		112 (29.1)		
가능한 남편	117 (57.9)	105 (57.4)		114 (55.9)	108 (59.7)		51 (54.3)	54 (60.7)	63 (57.3)	54 (58.7)		222 (57.7)		
전적으로 남편	17 (8.4)	13 (7.1)		14 (6.9)	16 (8.8)		6 (6.4)	7 (7.8)	8 (7.3)	9 (9.8)		30 (7.8)		
계	202 (100)	183 (100)		204 (100)	181 (100)		94 (100)	89 (100)	110 (100)	92 (100)		385 (100)		

3) 부부 모두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 식사관리 책임

구분	일반특성			성별			학교급별			남녀 중·고교별				
	남	여	x2	중	고	x2	여중	여고	남중	남고	x2	계		
가능한 아내	25 (12.4)	9 (4.9)	13.81**	15 (7.4)	19 (10.5)	5.81	8 (8.5)	1 (1.1)	7 (6.4)	18 (19.6)	32.69***	34 (8.8)		
남편, 아내 반반씩	158 (78.2)	168 (91.8)		171 (83.8)	155 (85.6)		82 (87.2)	86 (96.6)	89 (80.9)	69 (75.0)		326 (84.7)		
가능한 남편	17 (8.4)	5 (2.8)		15 (7.4)	7 (3.9)		3 (3.2)	2 (2.3)	12 (10.9)	5 (5.4)		22 (5.7)		
전적으로 남편	2 (1.0)	1 (0.5)		3 (1.4)	·		1 (1.1)	·	2 (1.8)	·		3 (0.8)		
계	202 (100)	183 (100)		204 (100)	181 (100)		94 (100)	89 (100)	110 (100)	92 (100)		385 (100)		

\*\*\*p<.001. \*\*p<.01. \*p<.05

정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사 노동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미래의 식사관리 책임에 대한 인식

미래 가정의 식사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만 성별과 남녀 중·고교별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편만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응답 학생의 63.1%가 가능한 아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였다. 남편만 직장생활을 할 때에 식사관리를 부부가 반반씩 해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자 22.8%, 여자 17.5%를 나타내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들의 의식 변화가 많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내만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57.7%의 학생이 가능한 남편이 식사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적으로 남편 책임이라 응답한 학생은 7.8%였다. 남편만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보다 응답율은 낮았지만 2/3 정도의 학생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식사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내만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내가 가져야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1명, 0.2%에 불과하였다.

성별 인식 차이를 보면 부부 모두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가 절반씩 나누어 일을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은 78.2%, 여학생은 91.8%로 여학생이 더 높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학교 급별에서는 남편만 직장생활을 할 때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남편만 직장 생활을 할 경우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일을 하자는 것에 중

학생 24.0%, 고등학생 16.0%, 아내가 가능한 일해야 한다는 중학생 70.1%, 고등학생 82.3%가 응답하여, 고등학생이 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중·고교별로는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할 경우 여고생 96.6%, 여중생 87.2%, 남중생 80.9%, 남고생 75.0%가 식사 관리를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해야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남중 학생들이 남고생보다 더 높게 인식한 것은 제6차 교육과정의 의해 가정과 교육을 받은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남녀 모두 식사관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가정에서의 실천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의 식생활은 식품의 간편화 즉 가공식품, 반조리 식품의 증가와 함께 부엌시설의 기계화 등으로 편리성이 증가하여 남녀 학생들이 식사관리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경험을 쌓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관리에 관련된 시장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 등이 학교 실습시간을 통해 지도된다면 더욱 유익하리라 본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도 식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식사관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하여 손쉽게 가사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참여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식사관리에 대한 학습 요구도

식사관리 관련 항목, 즉 식품 구입, 식단 작성,

<표 11> 식사 관리에 대한 학습 요구도

항 목	평 균(표준편차)
식품구입	3.84(.82)
식단작성	3.63(.88)
조리기능	4.21(.78)
상차림	3.68(.88)
식품보관	4.18(.81)
식사에절	4.24(.83)
계	3.96(.53)

· 전혀 배울 필요없다(1점), 배우지 않아도 된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배우면 좋다(4점), 꼭 배워야 한다(5점)

〈표 12〉 식사 관리에 대한 학습 요구도

$\bar{X} (S \cdot D)$

항목	성별			학교 급별			남녀 중·고교별				
	남	여	F값	중	고	F값	여중	여고	남중	남고	F값
식품구입	3.73 (.86)	3.95 (.75)	6.94**	3.91 (.73)	3.75 (.90)	3.71	3.97 (.68)	3.93 (.82)	3.86 (.77)	3.58 (.94)	4.49**
식단작성	3.61 (.85)	3.64 (.91)	.08	3.61 (.91)	3.64 (.84)	.10	3.43 (1.02)	3.87 (.73)	3.77 (.77)	3.42 (.89)	6.77***
조리기능	4.09 (.77)	4.33 (.78)	9.57**	4.28 (.75)	4.12 (.81)	4.48*	4.38 (.73)	4.28 (.83)	4.20 (.75)	3.96 (.77)	5.16**
상차림	3.54 (.88)	3.83 (.87)	9.89**	3.79 (.84)	3.55 (.92)	7.62**	3.89 (.87)	3.75 (.86)	3.71 (.81)	3.35 (.93)	6.68***
식품보관	4.13 (.87)	4.23 (.74)	1.65	4.18 (.79)	4.18 (.83)	.00	4.17 (.77)	4.30 (.70)	4.19 (.82)	4.05 (.93)	1.43
식사에절	4.30 (.80)	4.19 (.86)	1.72	4.30 (.83)	4.18 (.83)	1.89	4.20 (.96)	4.17 (.74)	4.38 (.70)	4.20 (.90)	1.44

· 전혀 배울 필요없다(1점), 배우지 않아도 된다(2점), 그저 그렇다(3점), 배우면 좋다(4점), 꼭 배워야 한다(5점)

\*\*\*p<.001, \*\* p<.01, \* p<.05

조리기능, 상차림, 식품 보관, 식사 예절의 6가지 항목에 대하여 꼭 배워야 한다(5점)~전혀 배울 필요없다(1점)에 점수를 부여하여 학습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그 결과 식사 예절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조리기능, 식품 보관, 식품 구입, 상차림, 식단 작성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 요구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식사 예절로 4.24이었고, 가장 낮은 항목은 식단작성으로 3.63이었으며, 최고와 최저 점수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전체 요구도 평균점수는 3.96, 즉 배우면 좋은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학교 조리실습 시간에 조리기능과 함께 식사 예절까지 지도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학생들이 음식 만들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 관리 단원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식사 예절도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식사관리 항목별 관련 변인에 따른 학습 요구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성별로는 식품 구입, 조리 기능, 상차림에서 여학생의 학습 요구도가 남학생보다 높았으며(p<.01), 학교 급별로는 조리 기능과 상차림에서 중학생의 요구도가

고등학생보다 높았다(p<.05, p<.01). 중학생이 학습 요구도가 더 높은 것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시에 따른 부담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남녀 중·고교별로는 식품 보관과 식사 예절을 제외한 식품 구입, 식단 작성, 조리 기능, 상차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1, p<.001, p<.01, p<.001). 식사 예절을 제외한 식품 구입, 식단 작성, 조리 기능, 상차림, 식품 보관에서 남자 고등학생들의 학습 요구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남자 고등학생들은 가정 교과를 전혀 공부하지 못하였음에도 학습의 필요성을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식사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식사 관리에 대한 남녀 중·고생들의 인식과 참여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식사관리 단원의 지도뿐만 아니라 성 역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시장 보기, 음식 만들기, 설거지 참여 실태는 '월 1-2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남녀간 성차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많이 참여하며, 남녀 중·고교별로는 시장 보기와 설거지는 여중생이, 음식 만들기는 여고생의 참여 빈도가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참여가 미흡한 편이라고 볼 수 있었다.

둘째, 식사관리 항목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일은 음식 만들기이며, 가장 싫어하는 일은 설거지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특히 설거지는 싫은 일이면서 가장 쉬운 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식단 짜기를 가장 어려운 일로 지적하였다.

셋째, 식사관리에 대한 아버지 참여 빈도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은 2.35, 즉 '년 1-2회'~'월 1-2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 빈도가 아주 낮았다. 식사관리 항목 중에서 시장 보기에 가장 자주 참여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식사관리에 대한 참여는 아들에게 본보기가 되므로 아버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하다. 또한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가정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선 전 가족원의 참여는 물론, 특히 아버지의 참여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아버지의 식사관리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인식으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중·고교별로는 여고생이 가장 찬성하고 있었다. 특히 남고생들은 아버지 참여에 대해 찬성도가 낮았는데 이는 미래의 가정 생활을 하는데 역할 갈등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남자 고등학생들도 반드시 가정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미래의 식사관리 책임에 관한 인식에서는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할 경우만 성별과 남녀 중·고교별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학생 78.2% 여학생 91.8%가 부부 함께 식사관리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식사관리 항목 6가지, 즉 식품 구입, 식단 짜기, 조리 기능, 상차림, 식품 저장, 식사 예절

에 대한 학습 요구도 조사 결과, 식사 예절과 조리 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학습 요구도 평균은 3.96, 즉 배우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교과를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요구도가 낮게 나왔는데, 이는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식사관리가 가정 생활에 꼭 필요하며 가족 구성원간에 일의 분담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남녀 학생들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의 식사관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식사관리에 실제로 참여하여 실천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 교과를 통해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식사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학교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은 가정 생활속의 부모님을 통해, 학교 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남학생들도 가정 교과를 학습하게 되는 제7차 교육과정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구정희(1990). 중학교 가정 교과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와 흥미 및 실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옥(1987). 가정 교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학습 성과에 관한 고찰(중학교 의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귀란(1992). 식생활과 관련된 가사 노동의 사회화 실태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희(1986). 중학생의 가사노동 참여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 영(1985).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의 남녀 공통 이수를 위한 방향모색.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1993). 한국 주부의 가사 노동 시간과 경제적 가치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1(4):89-92.
- 백민자(1992). 식생활 관리 실태에 대한 예비적 실태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창원·이기영(1984). 주부의 가사 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희숙·황임섭(1990). 중학교 가정과 학습지도의 형태에 따른 학습 성과에 관한 연구. -식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 101-110
- 신동순·김상희·오화자·정효숙·정혜경(1997). 중학교 남녀학생별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71-79.
- 신현자(1991). 가정학습을 통한 남중생의 가정 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현주·홍성야(1997). 인천 시내 남녀 중학생의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 및 학습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9(1):19-37.
- 윤인경(1993).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실천 방향 탐색.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자료. 경기도교육청.
- 이인희·이옥임(1988). 가정과 교수법. 서울:수학사.
- 이정수·고경애(1985). 가족의 가사 노동 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의 관계-대도시와 소도시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3(2): 67-90.
- 정영금(1984). 가사 노동의 가치 평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한선(1989). 중학생의 가사 노동 참여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은정(1996). 중학교 가정과 교사와 학생들의 가정과목과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